

칼 바르트 사상의 변화

반전, 평화운동과 관련하여

정미현
(이화여대)

I. 들어가는 말

바르트의 신학적 활동을 정치 사회적 상황과의 관련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1930년대에 나치주의에 반대하여 신학적,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고 저항했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비하여 1950년대의 냉전체제 하에 바르트는 적어도 겉으로 볼 때 비교적 소극적이었다. 이를 두고 혹자는 그가 늙어가면서, 젊은 시절의 예언자적 통찰력을 상실한 것이라고도 하였고, 바르트가 그의 냉철한 비판력을 더 이상 지니지 못한다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저 유명한 에밀 부른너와 라인홀드 니버와 같은 신학자들도 있었다. 그러면 왜 바르트는 이러한 비판이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하려 들지 않았는가? 또한 왜 바르트는 에밀 부른너와의 논쟁을 통하여 1930년대 자연신학의 문제성을 나치주의와 관련해서 지적하였던 것처럼 이에 대응하지 않았는가? 과연 그는 예언자적 통찰력을 상실하였던 것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답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요지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르트가 냉전

시대를 살아갔던 신학자로서 반전과 평화를 위하여 취한 행동의 모습을 새롭게 조명하여 볼 수 있고, 그 가치를 전쟁의 어두움이 가시지 않는 오늘날의 세계 구도에서도 다시금 새겨볼 수 있을 것이다.

II. 몸말

가. 한국전쟁과 칼 바르트

1950년대 냉전시대의 분위기는 세계평화를 극도로 위협하였다. 한국전쟁은 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성을 지니고 있었다. 바르트가 한국전쟁을 어떻게 바라보았으며, 직접적으로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그의 신학적 사상과 태도를 짐작해 보게끔하는 단서들이 있다.¹⁾ 1950년 6월 25일의 한국전쟁은 북미와 서유럽에서 일반적으로 러시아와 북한의 일방적인 한반도 침략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1950년 가을 당시의 서독을 위시한 서유럽과 미국에서는 서독의 군인들이 포함된 “유럽 군대”를 결성하여도 좋을지 논의되었다. 1950년 8월 29일 서독 수상 콘라드 아데나워(K. Adenauer)가 의회의 동의 없이 이에 응하는 뜻을 표명하고 나서 여러 형태로 이에 대한 많은 논란이 생겨나게 되었다.

독일의 재무장 문제와 관련하여 1950년 10월 12일자 독일의 그리스도교 주간지 <그리스도인과 세계>에서 교백교회의 대표들은 아데나워를 격렬히 비판하였다. 이에 대하여 교백교회의 일원이었고 독일교회의 총회장을 역임하고 당시 내무장관이던 구스타프 하이네만(G. Heine-mann)은 장관자리에서 사퇴하였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볼프 디터 짐머만(W. D. Zimmermann)이라고 하는 본뮐퍼의 제자였고, 목사이자

1) Vgl. Meehyun Chung, Karl Barth, Josef L. Hromadka, Korea-Eine koreanische Relektüre europäischer Theologie, Berlin 1995, S. 114-124.

베를린의 시사지 <운터벡스>(Unterwegs)의 편집장이 “고백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는” 바르트에게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요청하였다. <그리스도인과 세계>(Christ und Welt)에서는 1930년대 “로마드카에게 보낸 바르트의 편지”²⁾를 다시 언급하면서, 이러한 냉전시대와 독일 재무장 문제에 직면하여 바르트가 이와 유사한 공개서한을 써줄 것을 바란 것이었다. 이들은 바르트가 히틀러의 압제에 있던 체코인들에게 써보냈던 저항을 독려하는 의미의 글이 이제 스탈린의 압박에 놓인 독일인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이다. <그리스도인과 세계>의 편집장 생각으로는 바르트가 이러한 글을 써 준다면 독일 재무장을 정당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다. 1930년대 로마드카에게 보낸 바르트의 편지에서 언급된 것처럼 히틀러의 나치주의에 저항하여 체코 군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간단히 몇 개의 단어만 바꾸어서 공산주의에 저항하여 자유세계의 군사(혹은 또한 독일의 군사)가 일어서야 된다고 강조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바르트는 전적으로 이 문제를 달리 보고 있었다. 바르트는 고백교회의 성향을 다분히 지니고 있는 시사지 <운터벡스>의 요청에 따라 그해 10월 17일에 “두려워 말라!(Fürchtet Euch nicht)”라는 제목의 공개서한을 보냈으며, 이 글은 1950년 11월 1일에 인쇄되어 세상에 알려졌다.

바르트는 자신의 입장을 담은 이 글에서 왜 냉전시대의 문제를 1930년대의 상황과 비교할 수 없으며, 1938년 뮌헨협정 이후 로마드카에게 보내진 편지와 같은 것을 이 냉전상황에서 쓸 수 없는 이유들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 1) 히틀러 당시에 유럽국민과 교회는 현실을 직시할 수 없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성을 바르트가 곧바로 알리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스탈린의 공산주의에 대응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였다. 이 공산주

2) 참고: 정미현, “로마드카에게 보낸 바르트의 편지”, 《조직신학 논총 2집》, 한국 조직신학회, 1996년 4월, 155-176쪽.

의에 맞서고자 서방세계가 함께 뭉쳤고, 그리스도교적인 발언을 보태어 이러한 대립을 더 강화시키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이러한 냉전의 대립관계 속에서 아무도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너무 예민하게 깨어 있고 신경증적 대립을 보이며, 흥분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다. 바르트는 그리스도교적인 발언은 이러한 대립 속에서 경계 경보를 울리는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의 말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럼으로써 정치적 긴장감과 전쟁의 위험을 약화시킬 수가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로마드카에게 보낸 바르트의 편지”를 다시금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서 작성하는 것을 거부한 그는 그대신 교회 교의학 작업을 계속 추진하여 나갔는데 《교회 교의학》 III/3은 1950년에, III/4는 1951년에 나왔다. 이 부분에서 바르트는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밀도있게 다루고 있다. 창조론을 마감하고 화해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리스도교 윤리학의 차원에서 이 주제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었다.

- 2) 1938년 사건에 대한 유럽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미온적이고 냉철하지 못한 태도 때문에 바르트는 나치 독일에 대한 저항을 외쳐야만 하였다. 그에 비하여 1945년 이후로 서방세계는 보편적으로 소련의 공격의 위험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굳이 바르트가 따로 목소리를 드높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바르트도 소련의 위험성과 과격한 선전의 문제성을 부인하지 않았고 직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1950년의 한국전쟁이 소련의 공격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 소련은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최후 통첩을 보내지 않았고—나는 한국전쟁이 그러한 예라고 보지 않는데—또한 그에 상응하는 공격성을 드러내지도 않았다.”³⁾ 이렇게 바르트는 냉전시대의 상황을 1930년대의 상황과는 다른 맥락에서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생각은 무엇보다도 이랬다. 즉 공산주의에 맞서는 최선의 방어는 실제로 전쟁을 위한 군사적 준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

3) K. Barth, Fürchtet Euch nicht! in: Der Götze wackelt. Zeitkritische Aufsätze, Reden und Briefe von 1930–1960, hrsg. von K. Kupisch, Berlin 1961, S. 153, und Offene Briefe 1945–1968 Gesamtausgabe V. hrsg. von D. Koch, Zürich 1984, S. 209.

방세계에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위하여 사회적 체계를 옮겨 갖추는데 주력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다.” “공산주의를 원치않는 사람은—우리 모두가 그것을 원치 않는 것인데—, 그 공산주의에 마주 대항하여 있을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회주의를 위하여 서 있어야 할 것이다.”⁴⁾ 바르트의 견해는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이 철저하였다. “공산주의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너무 성급하게 공산주의를 부정하여 서방세계의 두려움을 부풀리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서방세계의 ‘더 나은 경제정의 실현’을 통하여 가능한 것이다”⁵⁾라고 보았다.

- 3) 여기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독일의 재무장 문제였다. 바르트는 무장된 방어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독일 군사주의의 봉기를 비판한 것이었다. 때문에 그는 이 문제를 일반적인 평화주의의 문제나 그 밖의 서방세계의 방어준비 태세와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독일의 재무장은 독일 군사주의의 재도입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군사주의가 또다시 전체주의로 확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서독의 재무장이 공산주의를 막아내는 유일하게 확실한 방법이라는 확신은 더 나은 사회적 정의를 만들어내는 것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⁶⁾

공산주의에 대한 바르트의 이와같은 입장 표명은 반공주의에 맞선 그의 주장이기도 하다. 냉전시대의 이념적 대립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행하였던 바르트의 일련의 노력들은 주목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두고 마코비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대부분의 서구 유럽의 단순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르트의 동기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그가 생각하는 심도 깊은 체계는 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명확한 말들은—또한 그의 침묵까지도—사람들로 하여금 냉전시대의 적대감과

4) Vgl. Barth, a.a.O., S. 153.

5) Barth, a.a.O., S. 154 und Offene Briefe, S. 210.

6) Barth, How my mind has changed?, in: Der Götze wackelt, S. 197.

7) Vgl. Barth, Politische Entscheidung in der Einheit des Glaubens, ThExh 34, 1952, S.

선입견을 깨트리기 위하여 생각할 여지를 주었던 것이다.”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트의 이와 같은 사상과 태도들은 사람들에게 이해되기 힘들었고 오히려 왜곡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로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달라 붙어있고 암울하게 하는 것은 동서문제이다. 바로 이 문제에서 나는 나를 둘러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일치하기 힘들다. 그것은 내가 동구의 공산주의에 대하여 지금까지 되어진 상황과 관련하여 일말의 호감이 있어서가 아니다. 나는 나 자신이 그 지역에 살아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강요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거부감이 15년 전부터 서구사회에서 정치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늘어나는 첨예한 대립을 가중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원칙주의적인 반공주의를 공산주의 자체보다 더 나쁜 것이라고 여긴다.”⁹⁾ 바르트는 मामले 새로운 이상으로 섬겨지는 서구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들을 조롱하였고, “자유 민주주의”라는 허울 속에 숨겨진 서구 그리스도교의 이상승배의 형태를 날카롭게 꼬집어내었다. 그는 무신론자들이 이론적으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경건한 신앙인들이 오히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을 비판하였다.¹⁰⁾

1949년 “동과 서에서의 교회”(Die Kirche zwischen Ost und West)라는 제목으로 행한 강연에서 바르트는 강한 어조로 동서간의 갈등과 대립을 부정하였다. 냉전체제 속에서 거대한 세력들이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이 때 불붙는 냉전 대립에 기름을 뿌려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다. 교회는 이러한 대립 체제를 부추키거나 같이 동조

8) M. Machovec, Praktische Konsequenzen der dialektischen Theologie, in: Marxismus und die dialektische Theologie, Zürich 1965, S. 118.

9) Barth, How my mind has changed? S. 201.

10) Vgl. Barth, Die christliche Kirchen und die heutige Wirklichkeit, in: Der Götze wackelt, S. 103.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대립과 갈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대립과 갈등은 본질적이거나 흥미로운 것이 아니고, 단순히 권력 다툼인 것이다. 제3차 세계대전으로까지 이러한 대립과 갈등이 번지지 않도록 교회가 경고해야 할 것이다.¹¹⁾ 이와 같은 바르트의 생각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계의 사건과 세상에서의 갈등과 투쟁을 중립적으로 냉담히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현실안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다양한 세계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도울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교회를 위한 좋은 요청이 되며 구체적으로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결단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한 결정은 인간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고 숙고하는 것이 요청된다. 결단해야 될 때가 되면 그러한 현실로부터 도피해서는 안 될 것이며,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열정적인 참여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는 이와 같은 인간의 행동과 결단을 촉구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한국전쟁의 발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세계교회협의회는 토론토에서 선언서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북한에게 전쟁의 전적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었다. 헝가리 개혁교회의 주교이자 세계교회협의회 중앙위원이었던 알버트 베레츠키(A. Bereczky)는 이 선언서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항의하였다. 1950년 8월 14일 그는 스위스 취리히에서 바르트를 만나 대화를 나누었는데, 토론토 선언서와 세계교회협의회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통하여 두 사람은 유사한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바르트는 헝가리 교회에서 발행되는 독어판 신문을 통하여 헝가리 교회의 내부 상황을 알고 있었고, 헝가리교회가 사회주의에 대하여 너무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는가 하는 점을 염려하고 있

11) Vgl. Barth, Die Kirche zwischen Ost und West, in: Der Götze wackelt, S. 129, 134.

었다.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헝가리교회도 양상은 다르지만 공산주의적 힘을 제2의 계시로 여기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었다. 당시에 공산주의적 이념은 동구 유럽뿐 아니라, 서구 유럽에서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수렴되었는데, 바르트는 복음과 공산주의적 이념 사이의 혼동에 대하여 우려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르트는 베레츠키에게 공개서한을 보낸다. 바르멘 선언에서의 내용과 유사하게 바르트는 한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그 어떠한 다른 사건이나, 힘이나 형태나 진리들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세계사의 특정 사건(1930년대에는 히틀러의 등장)을 하나님의 특별계시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사건과 연결짓는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다.¹²⁾

바르트의 1934년의 신학적 명제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밀접히 연결되어 작성된 것이다. 그것은 “독일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사상에 근거하여 복음과 세계사의 사건의 혼용과 혼합하려는 것에 대한 신학적 비판이었다. 그런데 바르트는 이와 유사한 신학적 비판을 사회주의와의 연관성 속에서 또 다시 지적하고 나선 것이었다. 자본주의 사회의 서구 유럽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반공주의의 위험성과 우상화를 지적하였고, 공산주의를 체제적 이념으로 맹신하려는 동구유럽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는 사회주의의 이념을 복음과 혼동하는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냉전의 시대 상황 가운데 바르트와 에밀 부른너의 또 다른 차원에서의 대립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이미 1930년대 나치주의 등장시대에 신학적, 정치적 맥락에서 크게 대립한 바가 있었고 이 내용은 보편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1948년 바르트는 헝가리를 방문하고 나서 “철의 장막” 뒤에 있는 개혁교회(Reformierte Kirche hinter dem ‘eisernen Vorhang’)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썼다. 이 보고서

12) Vgl. Barth, Brief an Bereczky, in: Offene Briefe, S. 280.

를 읽고 난 부른너는 한 공개서한을¹³⁾ 바르트에게 보냈는데, 이로부터 1930년대에 자연신학에 대한 제1차 논쟁에 이어서 이 둘 사이의 공개적 제2차 논쟁이 비롯된 것이다. 부른너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여야 하는가?(Wie soll man das verstehen?)”라는 제목의 편지에서 1950년대의 전체주의라는 것도 1930년대에 바르트가 신랄하게 부정(Nein)했던 것처럼 교회가 전격적으로 거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묻고 있다. 이 편지에서 부른너는 바르트가 일관성이 없다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었다. 부른너는 바르트가 나치주의를 교회와 신학의 문제로 보려하였던 것에 대하여 1930년대 당시에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러기에 바르트의 입장에 동의할 수도 없었다. 그런데 부른너는 이번에 전체주의의 위협에 휘감긴 공산주의 문제를 거론하고 이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부른너는 전체주의적 공산주의와 구별되는 사회주의 자체는 용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부른너는 바르트의 태도와 견해가 전체주의적 공산주의를 오히려 정당화한다고 보았으며, 이에 대하여 신랄히 비판하였다. 그래서 1930년대 벌어진 사회의 문제상황 앞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als ob nichts geschehen w re)” 행동하기를 거부한채 안일하게 살아가는 신학자의 태도를 비판하던 바르트의 목소리를 냉전의 상황에서 또다시 듣기 원했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바르트는 1948년 6월 6일 “‘오늘’의 신학적 실존(Theologische Existenz ‘heute’)”이라는 제목의 공개서한을 통하여 답하고 있다. 이 제목에서부터 의도하는 바와 같이 바르트는 1930년대 자신이 사용했던 동일한 제목을 다시 사용하면서 ‘오늘’이란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며, 신학이 시대의 상황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환기시키고 있다. 이 공개서한은 스위스의 보도 매체에서 신랄한 비판 받았다. 왜냐하면 바르트는 교회가 처한 상황이 당시와 다름을 강조하

13) E. Brunner, Wie soll man das verstehen? Offener Brief an Karl Barth, in: Offene Briefe 1945-1968, S. 149-158.

고 있기 때문이었다. 교회는 “시간성 없이 이러 저러한 무슨무슨 주의 나 체제와 관련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믿음 안으로 들어서는 각각의 역사적 실재성들과 관련있는 것이다. 교회는 어떤 자연법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께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결코 ‘원칙적’일 수 없다. 교회는 오히려 영적으로 판단하고 그 때문에 상황성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정치적 역사와 그에 대한 참여를 고정된 체계로 묶어두는 것을 거부한다. 교회는 자유를 지키고, 새로운 현상들을 또한 눈여겨 보게된다. ... 교회가 어제 그 자리로부터 그 책임에 대하여 말했다면, 오늘은 또 오늘의 자리에서 또 그 책임으로부터 침묵이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침묵해도 되고 침묵해야 할 것이다. 교회가 언제나 끊임 없이 ‘오늘’의 신학적 실존이기를 놓쳐버리지 않는다면 통일성과 신학적 실존의 연속성은 가장 잘 유지될 것이다.”¹⁴⁾

바르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태도는 변증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바르멘 선언의 제1명제를 지키는 것이 부른너가 강조 하듯이 전체주의를 비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사회주의는 독일의 나치주의와는 다른 차원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사회의 개혁과 갱신을 통하여 사회주의의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로 위협하는 군사주의적 행동과 냉전의 이념에 사로잡혀 대응하는 것은 참으로 문제적임을 예리하게 지적해 나갔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입장을 정리하여 파당성을 표현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중요하다고 여겼다. 바르트의 입장은 이처럼 단호하였다. 공산주의의 문제는 1930년대 히틀러주의와는 차원이 다름을 강조하는 것이며, 냉전시대에 교회는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것에 기운을 다 쏟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할 일은 더 나은

14) Barth, Brief an E. Brunner, in: Offene Briefe, S. 159.

사회정의와 인권회복을 위하여 사회를 개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르트가 나치 독일과 소련 공산주의 사이에 차이를 두려고 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특히 반공주의가 가장 중요한 국가적 덕목으로 여겨지는 스위스에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트의 정치적, 신학적 견해는 좌파 성향이 너무 강한 것으로 비판받게 된 것이다. 1910년대의 “자폐빌의 빨갱이 목사”는 1950년대에도 여전히 “빨갱이 목사”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바르트는 고정된 이념에 사로잡혀 있던 고루한 신학자가 아니었다. 한 손에는 성서를, 한 손에는 신문을 쥐고 늘 씨름했던 그의 모습대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학자였다. 1930년대 바르트가 공격했던 대상은 정치적 세력으로서의 나치주의가 아니었고, 신학적으로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맥락에서 새로운 계시의 가능성을 허틀러에게서 찾고 있던 “독일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신학적 사상을 지적한 것이었다. 바로 그점에서도 보여진 바와 같이 그는 책임있는 신학자로서 행동했으며 신학자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서 정치적 상관관계를 비판적으로 통찰하고 있었던 것이다. 냉전시대에 그의 목소리를 다시 드높이기를 바라는 동료들과 후배들의 요청에 바르트는 이처럼 단호히 거부하며, 오히려 이번에는 침묵이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임을 말해 주고 있다.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주의에 대응해야 하는 방법과 책무기의 위험성 속에 빠진 냉전 체제에서 반전과 평화를 갈망하는 그의 신학적 통찰력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즉 1930년대에 바르트가 “예언자적 외침”을 통하여 그의 시대상황 속에서 신학자로서 행동하였다면, 1950년대에 그는 “예언자적 침묵”을 통하여 그의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나. 헝가리 사태와 칼 바르트

바르트는 1956년 헝가리 사태에 대해서도 그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침묵하였다. 그래서 또 한 번 바르트의 태도에 대하여 여러 형태의 비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바르트가 신학적 통찰력을 상실하였고, 더 이상 정치적 사태를 직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그에 대한 비판의 요지이다. 이와 같이 침묵 가운데 있던 바르트를 비난하며 라인홀드 니버는 “왜 바르트는 헝가리 사태에 대하여 침묵하는가?”¹⁵⁾라는 글을 발표하였다. 고백교회의 선봉에 서서 예언자적 시각을 갖고 나치주의에 대응하였던 바르트가 이제는 늙어서 사태를 제대로 분간하지도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바르트는 이에 즉각적으로 응수하지 않았다. 그는 니버와 이 주제를 놓고 공개토론을 하려고 들지도 않았다. 이 두 신학자는 이미 1948년 세계교회협의회가 결성된 후에 유럽 대륙의 신학의 문제를 두고 공개 토론을 한 적이 있었다.¹⁶⁾

그렇지만 이번에 바르트는 반공주의의 불이 타고 있는 곳에 영적인 장작을 보태서 불이 더 타들어가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바르트는 서구 자본주의의 편에 하나님이 서 있고,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뒤에는 악마만이 존재한다고 보는 단순한 신앙관과 이것에 기초한 정치적 태도를 문제시하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자신들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는 서구사회를 향하여 자기 비판적 태도를 갖을 것을 촉구한다. 그도 역시 공산주의의 체제와 전체주의적 방법을 거부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그리스도교적 십자군 전쟁을 벌이려는 태도와 시대 조류 또한 거부한 것이다. 왜냐하면 바르트는 원칙적 반공주의가 공산주의 그 자체보다 더 문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1958년 동독의 한 목사에게 보낸 서한을 통하여 바르트는 자신의

15) R. Niebuhr, Why is Barth Silent on Hungary?, in: The Christian Century 74, 1957, pp. 108ff.

16) Vgl. Barth, Prälimina re Gedanken zu Reinhold Niebuhrs Darlegung über die “kontinentale Theologie”, und R. Niebuhr, Wir sind Menschen und nicht Gott, in: Gespräche nach Amsterdam, Zollikon-Zürich 1949.

심정을 드러낸다.¹⁷⁾ 그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바르트를 향하여 내 던져진 이러한 질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고자 행하여진 물음이 아니라, 고집스런 서방의 정치가¹⁸⁾들이 늘 상 그렇듯이 적군을 얼음바닥에 넘어트리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원시적 반공주의를 표방하게 강요하거나 아니면 감추어진 용공주의자임을 밝혀서 신학자로서의 바르트의 품위를 떨어트리려는 행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바르트는 니버와 부른너와는 달리 나치주의와 소련의 사회주의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읽어냈기 때문에 이 두 신학자와는 차별을 두고 행동했던 것이다. 냉전의 상황을 완화시키고 평화를 추구하려고 하며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보다 정의로운 사회와 세계 구조를 희망하던 바르트의 심오한 의도가 이들에게는 판단착오를 일으키고 더 이상 미래 지향적이지 못한 늪어빠진 신학자의 태만함내지는 비겁함으로 보인 것이다. 그의 침묵은 반미적인 것도, 용공주의적인 것도 의미하지 않았다. 그는 흑백논리만이 지배하는 냉전 체제의 그 어느 편에도 서고자 하지 않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동서 지배 체제의 위험한 상황 가운데 중도적 입장을 지켜나갔던 것이다. 그래서 서방체제의 병적인 반공주의나 동구권의 반서방주의의 어느 쪽도 손을 들어줄 수 없었다. 한 쪽의 입장에 굳건히 서서 다른 한 쪽을 비판하였던 1930년대의 태도와는 그래서 사뭇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르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대의 징조를 읽어내고 상황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대처했던 것이다. 결국 그에게 있어서 더욱

17) Vgl. Barth, Brief an einen Pfarrer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Offene Briefe 1945-1968, S. 412.

18) 바르트가 서방 정치가라는 언급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한 바가 니버를 직선적으로 가리킨 것인가 하는 점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바르트는 이 당시에 서방 정치가들 중에 특히 덜레스와 아데나워(Dulles-Adenauer)의 정책 노선을 문제시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중요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 사회를 향한 정의를 부르짖는 것이었지, 파당적이거나 편파적으로 상황을 무시한 채 정치적 참여만을 고집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어느 시대나 예언자적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예언자적 소리라는 것은 때로는 큰 목소리로 울려 퍼질 때도 있겠으나, 때로는 침묵이 그러한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을 1950년대의 바르트의 신학적 주관과 소명에서 읽어낼 수 있었다. 그 침묵은 일어난 세계의 사건과 상황에 대한 무관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는 그 어떤 큰 목소리로 이야기한 것보다 더 큰 소리로 들려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외침이나 침묵의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부터 조명되어 상황에 대처하는가 하는 점이다. 표현의 방법은 오히려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다. 바르트 사상의 변화—정당전쟁과 관련하여

바르트는 《교회 교의학》 III/4권 창조론에서 생명과 관련된 윤리문제를 다루고 있다.¹⁹⁾ 그 가운데에서도 “삶을 위한 자유”라는 주제에서 바르트는 우선 “삶에 대한 경외”를 말하면서 신학적으로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찾는다. 그 탄생자체가 삶에 대한 경외를 명하는 계명의 계시라고 본 것이다. 또한 “삶을 위한 방어”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는 십계명의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에 비추어 폭력과 살생의 문제성을 짚어보고 있다. 폭력 살생의 개별적 가능성은 자살, 공동 자살, 고의적 임신 중절, 살 가치가 없는 삶의 살생, 안락사, 정당방위, 사형, 전쟁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특별히 전쟁에 대하여 바르트는 역사 안에서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치질서를 이루고 있는 정상적 요소로 인정되기 불가능하다고 본다.²⁰⁾ 즉 정상적

19) K. Barth, Die Kirchliche Dogmatik, III/4, S. 366-648, Zürich 1993.

인 것은 평화인 것이다. 바르트는 대부분의 전쟁이 군수산업을 위시한 경제적 이권 쟁탈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²¹⁾

그는 전쟁을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원칙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피할 수 있는 “조용한 이성”이 필요함을 말한다. 교회는 원칙주의적 평화주의가 아니라, 전쟁을 실질적으로 피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조용한 이성”이 들려질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²²⁾ 교회는 이 평화를 위한 교육을 지지하고, 군사주의에 반대해야 함을 강조한다. 전쟁이 원칙적으로 불가피하다는 것에 반대할 책임을 교회가 지니는 것이다.²³⁾ 그러나 바르트는 “극단적 평화주의자들의 윤리적 절대주의”에 근거하여 전시 복무를 거절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다.²⁴⁾ 이보다는 상대적인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개방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리스도교 윤리는 원칙적 평화주의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군사주의적 행동에 반대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²⁵⁾ 오히려 그는 상황윤리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의에 기반한 평화를 정착하는 것이지, 속은 부패되고 겉으로만 평온한 불의한 평화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 평화주의를 거부한 것이다.²⁶⁾

이 시기까지만 해도 바르트는 원칙적 전쟁 반대나 급진적 평화주의의 윤리적 절대주의와는 다른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을 체험한 뒤 늘어나는 핵무기의 위협에 직면한 바르트는 바르멘 선언을 재해석하는 의미에서 평화문제를 새롭게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르트는 원자폭탄의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일찌 지적했

20) Vgl. Barth, Die Kirchliche Dogmatik, III/4, S. 522.

21) Vgl. Barth, Die Kirchliche Dogmatik, III/4, S. 517.

22) Vgl. Barth, Die Kirchliche Dogmatik, III/4, S. 526f.

23) Vgl. Barth, Die Kirchliche Dogmatik, III/4, S. 529.

24) Vgl. Barth, Die Kirchliche Dogmatik, III/4, S. 534.

25) Vgl. Barth, Die Kirchliche Dogmatik, III/4, S. 529.

26) Vgl. Barth, Die Kirchliche Dogmatik, III/4, S. 533.

다 하더라도, “정당전쟁”(bellum iustum)에 대한 1951년의 교회 교의학의 언급들은²⁷⁾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본인 스스로 시인하였다.²⁸⁾ 바르트는 히틀러주의에 대항하기 위하여 “정당전쟁”을 옹호하였다. 그리고 자신도 군대에서 총을 들고 히틀러의 군사주의에 맞설 준비가 되어있었음을 말하였다.²⁹⁾ 그렇지만 이제 바르트는 정당전쟁에 대한 자신의 신학적 사상이 바뀌었음을 말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교회 교의학에서의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미흡하고 문제적임을 밝혔다. 그는 정당전쟁의 원인과 의미와 관련해서 뿐 아니라, 정당전쟁 자체가 진행되는 것에 관해서도 말했어야 했다고 스스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핵전쟁은 더 이상 그 자체로서 정당전쟁일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 이것을 피할 수 없다면 단지 정당하지 않은 전쟁(ein bellum iniustum)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에 그리스도인에게는 병역거부밖에 남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가에 대한 봉사나 신적 질서의 이름에서 행하는 봉사가 아니라, 모든 것을 폐기하여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거부하는 것(Nein)만이 말해질 수 있다.”³⁰⁾ 이렇게 해서 바르트는 철저한 반전주의자로 돌아서게 되는 것이다. “전쟁을 망가진 권리를 다시 세우는 수단으로서 여기는 것은 이성적으로 핵무기 시대에 모순되는 것이다 ... 오늘날 전쟁이라고 하면 핵전쟁을 뜻한다. 그것이 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결단코 전쟁을 안 된다고 말하는 것뿐이다!”³¹⁾

27) Vgl. Barth, Die Kirchliche Dogmatik, III/4, S. 528ff.

28) Vgl. Barth, Die These 5 der Barner Erklärung und das Problem des gerechten Krieges, in: Texte zur Barner Theologischen Erklärung, hrsg. von M. Rohkrämer, Zürich 1984, S. 196.

29) Barth, a.a.O., S. 205.

30) Barth, a.a.O., S. 208.

31) Barth, a.a.O., S. 206.

III. 나가는 말

이상에서와 같이 1930년대와 1950년대 나치주의와 공산주의 각각의 문제에 대한 바르트의 입장과 신학적 대응의 방법을 살펴보았다. 바르트는 1930년대에 그 누구보다도 예언자적 시각에서 나치주의에 목소리 높여 대응하였으나, 냉전의 시대에 침묵으로 일관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그 이유에 대하여 해명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는 사회주의의 문제성을 신랄히 비판하기보다 오히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교회와 신학의 자기 반성을 촉구하였던 신학자였다. 또한 바르트는 1930년대 나치주의에 대항하는 정당전쟁을 통한 저항권을 인정하였으나, 1950년대 핵무기의 위협성에 직면한 세계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수정하여 어떠한 전쟁도 용납될 수 없음을 말하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화해론의 신학적, 실천적 작업에 몰두하였던 것이다.

움베르토 에코는 그의 신간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묻지 맙시다》³²⁾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현대 지성인의 최대 과제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반전은 지식인들만의 몫은 물론 아닐 것이다. 또한 반전, 평화운동은 그리스도교를 포함한 종교인들 뿐 아니라, 지구 공동체 모두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일이다. 지구촌은 이제 그물망과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상 그 어느 곳에서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승자와 패자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패자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산업의 발전과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보수 집단 이기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패권주의에 파탄된 세력들의 전쟁을 향한 욕구는 그칠 줄을 모른다. 군수주의 사업을 통하여 이득을 취하는 소수집단에 의해 조종되는 지구화의 흐름을 거슬러야 함에도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문제성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32) 움베르토 에코, “전쟁에 대하여 생각하기”,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묻지 맙시다》, 김운찬 역, 열린 책들 2003년, 29쪽.

역사 안에서 언제나 강대국의 이익을 위한 관심의 요충지였던 한반도의 평화는 이제 동북아의 평화 뿐 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과제를 지닌다. 동지가 아니면 적이라는 흑백논리에 길들여진 우리 사고의 전적인 전환이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절실하다. 특별히 남한의 그리스도교는 이와 같은 이원론적 사상을 지양시키기보다는 반공주의에 젖어 냉전의 논리를 극복하지 못한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왔다. 이것은 통전적 전체성을 지향하는 여성신학적 시각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의 폭력을 극복하고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에큐메니칼 신학의 차원에서도 우선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미 세계교회협의회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을 “폭력 극복의 해”로 지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과 행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된다. 거시적, 미시적인 여러 형태의 작업들이 모두 의미있겠으나, 특히 우리의 실정에서는 장기적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반전, 평화 교육이 교회로부터 확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원칙주의적 반공논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타종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교인 수 증가와 외형적 성장 제일주의의 논리에 빠져서 전도와 선교 “전략”을 세우고, 정복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나가서 싸우자, 군병, 승리, 용사 등등”의 군사주의적 언어가 가득한 찬송에 길들여져 있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의식부터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주의를 일방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자본주의 사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자기 반성을 촉구하고, 타종교를 비난하거나 배척하기 보다는 그리스도교의 문제성을 오히려 회개하도록 촉구했던 바르트의 “의침과 침묵”의 소리는 반공주의와 흑백논리가 여전히 더 우세한 오늘의 한반도에서도 새롭게 주목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소리는 신자유주의의 논리로 좌우되는 세계화의 질서 가운데 미국 중심의 전쟁의 폭력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소위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귀 기울여 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목록

Meehyun Chung, Karl Barth. Josef L. Hromadka. Korea-Eine koreanische Relektüre europäischer Theologie, Berlin 1995.

정미현, "로마드카에게 보낸 바르트의 편지", 《조직신학 논총 2집》, 한국조직신학회, 1996년 4월.

K. Barth, Fürchtet Euch nicht! in: Der Götze wackelt. Zeitkritische Aufsätze, Reden und Briefe von 1930-1960, hrsg. von K. Kupisch, Berlin 1961, und Offene Briefe 1945-1968 Gesamtausgabe V. hrsg. von D. Koch, Zürich 1984.

Barth, How my mind has changed?, in: Der Götze wackelt.

Barth, Politische Entscheidung in der Einheit des Glaubens, in: ThExh 34, 1952.

M. Machovec, Praktische Konsequenzen der dialektischen Theologie, in: Marxismus und die dialektische Theologie, Zürich 1965.

Barth, Die christliche Kirchen und die heutige Wirklichkeit, in: Der Götze wackelt.

Barth, Die Kirche zwischen Ost und West, in: Der Götze wackelt.

Barth, Brief an Bereczky, in: Offene Briefe.

Barth, Brief an E. Brunner, in: Offene Briefe.

R. Niebuhr, Why is Barth Silent on Hungary?, in: The Christian Century 74, 1957.

Barth, Prälimina re Gedanken zu Reinhold Niebuhrs Darlegung über die "kontinentale Theologie", und R. Niebuhr, Wir sind Menschen und nicht Gott, in: Gespräche nach Amsterdam, Zollikon-Zürich 1949.

Barth, Brief an einen Pfarrer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Offene Briefe 1945-1968.

Barth, Die Kirchliche Dogmatik, III/4, Zürich 1993.

Barth, Die These 5 der Barmer Erklärung und das Problem des gerechten Krieges, in: Texte zur Barmer Theologischen Erklärung, hrsg. von M.

Rohkrämer, Zürich 1984.

E. Brunner, Wie soll man das verstehen? Offener Brief an Karl Barth, in:
Offene Briefe 1945-1968.

움베르트 에코, "전쟁에 대하여 생각하기",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묻지
않시다》, 김운찬 역, 열린 책들 2003년.